

2023 / 09 / 11 월요일 11:50 ~ 14:30

2주차 토론 내용

- 프로그래밍 언어

최대철

-> 기계어와 어셈블리어와 고급언어는 산업혁명 같다고 생각했다. 어셈블리어는 처음 듣는 것이어서 당황하였다. 이진수를 더욱 더 쉽게 설명한것이라 나와있어 이해하기 쉬웠다. 고급언어는 자바나 c,c# 같은거여서 알기 쉬웠다

한승헌

-> 기계어와 고급언어는 이미 이전에 배운 내용이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기계어는 cpu처리를 위한 언어로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어 cpu에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언어라고 설명을 했고, 고급언어는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이루기 위해 기계어 대신 편리하게 사용하는 언어라고 설명했다. 어셈블리어는 처음 들었지만, 추측하여 기계어를 보기좋게 바꿔놓는 언어라고 설명하였다.

- 객체 지향의 개념

최대철

-> 함수중복과 디폴트 매개 변수, 참조와 참조변수, 참조에 의한 호출과 제네릭 함수와 클래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머리속에서는 알지만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승헌

-> 객체 지향의 뜻을 잘 몰랐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 정리한 결과 더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우리가 사용하기 더욱 편한 형태의 고급언어를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c언어의 기능

최대철

->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들었을때는 이해가 잘 안되었지만 서로 말을 하면서 이해가 점차 되어가기 시작되었었다 c++ 은 c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더욱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라고 하여 잘 이해하였다.

한승헌

-> 기능의 이름을 보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서 선불리 설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나니 new/delete 연산자와 연산자의 재정 제외하고 모두 배운 내용이라 설명 할 수 있었다. 함수 중복은 매개변수의 타입이나 개수가 다른 같은 이름의 함수를 선언하는 것이고, 디폴트 매개변수는 매개변수에 디폴트 값을 매기는 것이고, 참조와 참조 변수는 변수 자체에 별명을 지어줘서 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말하는 것이고, 참조에 의

한 호출은 변수에 지어준 별명을 통해 호출하는 방식이고, 제네릭 함수와 클래스는 함수와 클래스를 일반화 시킨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 객체지향적 설명

최대철

-> 절차지향프로그래밍은 전체적인 것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짤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객체지향프로그래밍은 하나하나 따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것을 말하는 것이 객체지향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한승헌

-> 객체지향적 계획은 객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자판기를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짤 것 같다. 자판기를 중심으로 돈을 입력을 받았을 때, 충분하지 않다면 다시 입력을 요구할 것이고, 돈이 충분하다면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할 것이다. 버튼을 눌렀을 때 대응되는 상품의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면, 버튼을 다시 누를 것을 요구할 것이고, 재고가 충분하다면 그 상품을 사용자에게 줄 것이라라고 설명을 했다.